# 인간 거주에 불리한 지역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변화한 사례

2015년 05월 15일 금요일 | 2학년 3반 10번 윤정민

## 그린란드

그린란드는 원래는 사람이 살기에 혹독하고,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땅이었다. 사실 기원전 2500년 무렵부터 추위에 강한 이누이트 족이 살기 시작했고, 서기 986년부터는 노르만족도 살기 시작하기는 하였다. 허나, 이주해온 약 4000명의 노르만 족이 결국 거주지와 함께 소멸되면서 단지 이누이트 족이 잘 적용한 것일 뿐, 인간에게 적합한 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땅인 것이다.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르다.

2014년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많은 건물과 집들이 들어서 있으며, 공항이나 박물관, 가게 등 대부분의 도시에서 갖추고 있는 것을 갖추고 있다.

[그림1] 2014년 7월의 그린란드 모습

© 2015 Digital Globe / Google – 구글어스 7.1

또한 2009년의 인구는 57,600명으로 적은편이기는 하지만,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되었다.

## 두바이

|  |  |
| --- | --- |
| 나라 | 아랍에미리트 |
| 설립 | 1833년 6월 9일 |
| 인구 | 2,106,177 명(2013년) |
| 면적 | 4,114 ㎢ |

두바이는 급부상하는 도시중에 하나로, 사막위에 지은 거대한 도시이다. 정확히는 두바이 일대의 인공섬까지 포함하며, 두바이의 지하자원을 이용하여 돈을 번 뒤 이를 도시 개발에 사용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. 과거에는 사막이었으나, 현재에는 “꽃보다 할배 그리스편” 같은 TV 프로그램 들도 다녀올 정도로 유명해 졌다.

[그림 2] 두바이 모습들

출처: 나무위키 – 두바이 <https://namu.wiki/w/두바이> (CC-BY-NC-SA 2.0 KR)

일부 평가에서는 한강의 기적보다도 놀라운 사례라고 평하고 있다.

그러나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인신매매 관련 문제들은 해결되어야 할 숙제이다. (개인의견입니다 – 단, 생태계 파괴와 인신매매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.)

## 출처

각 항목의 출처는 Google Earth를 제외하고 CCL을 따릅니다. 또한, 해당 문서의 링크된 항목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.

출처: 위키백과 <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B%91%90%EB%B0%94%EC%9D%B4>

- 그린란드 항목

<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B%91%90%EB%B0%94%EC%9D%B4>

- 두바이 항목

라이선스: CC-BY-SA 3.0 (<http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-sa/3.0/>)

출처2: 나무위키 - .wiki 도메인의 경우 최근 생긴 도메인 이기에 구형 브라우저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. Chrome에서 해주세요… <https://namu.wiki/w/%EA%B7%B8%EB%A6%B0%EB%9E%80%EB%93%9C> - 그린란드 항목

<https://namu.wiki/w/두바이> - 두바이 항목

라이선스: CC-BY-NC-SA 2.0 KR <http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-nc-sa/2.0/kr/>

참고: CC-BY-NC-SA 4.0 에 의해 이 문서도 CCL로 공개합니다.(…)